

마음의 한 알, 우주의 한 조각

작은 씨앗이 하늘의 마음으로 자라나는 기적의 여정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을 열며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삶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현대 사회는 물질의 풍요를 삶의 가장 큰 가치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울려오는 작은 속삭임—보이지 않는 세계의 부름—을 외면하며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이 책은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이기 위한 작은 열쇠입니다. 한국 대라천에서 전해진 그랜드마스터(1949.3.12~2015.8.28)의 가르침, 그리고 일본 사카이시에 세워진 기 힐링 센터에서의 실제 체험을 토대로 쓰였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기氣의 실재를 느꼈고, 하늘과 조상, 그리고 후손을 잇는 천륜(天倫)의 신비를 체험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과 영의 실재를 알지 못한 채, 전생이나 환생 같은 개념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단순히 “다시 태어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조상과의 천륜을 맑히고, 본래의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지인의 진리이며, 효를 통해 완성되는 우주의 섭리입니다.

이 책은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글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이 스스로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하늘의 씨앗’을 발견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와 다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차

서문 —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을 열며

제 1부 삶의 전환과 새로운 출발

1 장. 삶이 벽처럼 다가올 때 — 흔들리던 나의 자리

2 장. 롯본기에서의 만남과 닫힌 문, 그리고 귀국

3 장. 사카이에서의 새로운 시작 — 다다미방의 수련

4 장. 제자들과의 인연 — 작은 센터, 큰 짐 그리고 업의 그림자

제 2부 시련과 깨달음

5 장. 타케우치 마스터의 모노카타리: 몸으로 배운 진리

6 장. 우지마루 마스터의 모노카타리: 젊은 날의 체험

7 장. 후지하라 마스터의 모노카타리와 세 제자의 탄생

제 3부 죽음과 영혼의 길

8 장. 죽음 이후의 길, 영혼의 탄생

– 오카타의 부고

– 영의 다섯 단계(저급 · 초급 · 중급 · 고급 · 대영계)

- 영을 신으로 혼동하는 세상
- 참된 해탈의 길
- 살아 있을 때만 가능한 변화

일원(一元)으로 향한 스승님의 길

9 장. 신과 영, 그리고 근본으로의 회귀

- 대전환의 시대와 5,787년 주기
- 부활의 올바른 의미: 원심으로 다시 태어남
- 신과 영은 다르다: 7 신계와 5 영의 세계
- 신·조상·나, 하나의 연결
- 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길

제 4 부 수련과 합일의 길

10 장. 하늘 12 진법 — 살아 있는 우리를 위한 수련

11 장. 제령·영수·천도 — 조상과 이어진 천륜을 맑히다

12 장. 두 길의 합일 — 하늘·조상·나, 하나로 돌아가다

- 두 길이 하나로 이어지는 원리
- 원심회귀: 근본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
- 시대적 전환기와 우주의 섭리
- 새 시대의 문을 열다

에필로그 새벽을 여는 고요한 예감

후기 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진리의 저편으로

스승님의 일원(一元)으로의 여정

부록 — 천수(天手)란 무엇인가

제 1 부 삶의 전환과 새로운 출발

- 1 장. 삶이 벽처럼 다가올 때 — 흔들리던 나의 자리
- 2 장. 롯본기에서의 만남과 닫힌 문, 그리고 귀국
- 3 장. 사카이에서의 새로운 시작 — 다다미방의 수련
- 4 장. 제자들과의 인연 — 작은 센터, 큰 짐 그리고 업의 그림자

제 1 장

삶이 벽처럼 다가올 때 — 흔들리던 나의 자리

롯본기에서의 고독은 언제나 나를 감싸고 있었다.

네온 불빛이 거리를 환하게 물들일수록, 오히려 내 마음에는 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도쿄에 도착했을 때 내가 가진 것은 기 센터 주소가 적힌 종이 한 장뿐이었다.

샤워 시설은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었고, 관계자들은 이미 떠난 뒤였다.

결국 나는 매일 새벽, 노숙자들이 잠든 틈에 공원 화장실로 가서 바가지로 찬물을 끼얹으며 몸을 씻었다.

그 물줄기는 피로와 땀을 씻어냈지만, 마음 깊은 곳의 허무함까지는 닦아낼 수 없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서 있어도, 나를 알아보는 이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

그것이 롯본기에서 내가 맞닥뜨린 현실이었다.

어린 시절, 일본에서 의사로 계시던 큰아버지가 가져오신 낯선 물건들은 나에게 호기심과 친근함을 함께 심어주었다.

돌이켜보면 그것이 훗날 이 땅과 맺게 될 인연의 예고였는지도 몰랐다.

스승님께서 일본으로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셨을 때,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다른 제자는 조건을 내세웠지만, 상근 제자로서 나는 오직 “예”라고 답할 수 밖에 없었다.

한 달의 정리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하늘의 흐름은 나의 준비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 시절, 대라천을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기도가 이어지고 있었다.

제자들은 각자의 길로 흘러졌고, 나에게는 가장 낯선 땅, 가장 중심인 롯본
기가 맡겨졌다.

도착하기 전부터 “일본은 쉽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

실제로 오사카조차 현지화에 실패한 채 교포들만 상대로 운영되고 있었다.

센터에는 커다란 유리창이 있어 기도할 때마다 외부의 시선이 느껴졌다.

샤워 시설은 끝내 완성되지 못했고,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공사비 일부
가 중간에서 사라졌다고 했다.

낯선 문화, 차가운 시선, 오해와 불신.

일본은 마치 “이 길이 쉽지 않다”는 말을 끊임없이 내게 던지는 듯했다.

그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나를 이 길로 보내셨습니까?”

하루하루가 버거웠지만, 작은 희망이 찾아왔다.

아키다의 한 여성이 전화로 *천수(天手)를 요청해온 것이다.

직접 만날 수 없어 전화를 통해 천수(天手)를 전했는데, 그녀는 분명히 기의
흐름을 느꼈다고 했다.

그것은 나의 마음에 꺼져가던 불씨를 되살리는 순간이었다.

*천수(天手): 하늘의 기운을 손을 통해 전수하여, 생명의 원기를 회복시키고 몸과 마음의 부
조화를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시술. (참조: 부록 — 천수(天手)란 무엇인가)

그러나 또 다른 무게가 다가왔다.

전처로부터 딸이 소아 우울증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다.

결국 아이는 혼자 비행기를 타고 내 곁으로 왔다.

비행기에서 내린 아이는 얼굴이 부어 있었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 있잖아, 탁구공 같아. 이리저리 튕기면서 그냥 떠도는 것 같아.”

나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아니야, 넌 결코 버려지지 않았어. 아빠는 언제나 네 곁에 있어.”

그 순간, 나는 스승님의 고행을 떠올렸다.

1979년 기미년, 쌀 한 되로 한 달을 버티던 극한의 수련.

아이들을 먹이지 못해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하늘을 향해 나아가야 했

던 길.

그 길은 세속의 때를 벗기고, 하늘을 담는 길이었다.

나의 현실 또한 그러했다.

아버지로서의 마음과 제자로서의 사명이 충돌했지만, 그 선택의 순간이야말로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묻는 시험이었다.

어느 날, 생명의 샘터 앞에 앉아 있던 나는 주체할 수 없는 서러움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스승님의 목소리였다.

“무슨 일이냐?”

짧은 물음이었지만, 그 울림은 내 마음을 깨뚫었다.

하늘은 내 개인의 준비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 흐름에 몸을 맡길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다.

제 2 장

롯본기에서의 만남과 닫힌 문, 그리고 귀국

롯본기에서의 시간은 채 6 개월도 되지 않아 막을 내리려 하고 있었다.

센터를 닫을 날이 가까워오던 어느 날, 한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예전부터 꼭 와보고 싶었지만, 이제야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눌려, 가슴이 짓눌리는 듯한 고통을 안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천수를 베풀어 주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조용히 되뇌었다.

“이 사람의 아픔을 내가 함께 짊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녀의 표정은 눈에 띄게 밝아지고, 호흡도 한결 편안해졌다.

그 순간, 꺼져가던 내 마음에 작은 불꽃이 다시 살아났다.

“왜 더 일찍 와주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속에서, 제자로서 내가 걷는 길의 의미를 새삼 떠올렸다.

며칠 뒤, 딸과 함께 공원에 나갔다. 처음 일본에 왔을 때 버려진 강아지처럼 움츠렸던 아이는 이제 어린아이답게 웃고 뛰어놀았다.

안심이 되면서도, 여전히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안타까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놀이공원에서 쉬던 중, 나는 낯은 벽에 앉아 있었다. 옆을 보니 동전이 몇 개 쌓여 있었고, 주인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 돈으로 아이가 원하던 우나기 도시락을 사서 함께 먹을 수 있었다.

그런데 아이는 어느샌가 맞은편에 앉아 있던 흠티스와 이야기를 나누더니,

빵이 든 비닐봉지를 내게 내밀었다.

나는 무심코 말했다.

“야, 더러우니 먹지 마라.”

그러자 아이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빠는 하늘의 일을 하는 제자인데,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이 녀석도 나를 시험하기 위해 보내주신 게 아닐까.’

억지로 도시락을 넘기며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

사람이 지쳐 있을 때는 사소한 말과 일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 법이었다.

결국 센터는 천수를 받던 이들의 도움으로 정리했고, 일부 짐은 오사카로 보

냈다.

그렇게 롯본기에서의 삶은 마침표를 찍고 귀국길에 올랐다.

오사카에서 나를 맞아 준 이는 중년의 여성 원장이었다.

술집이 즐비한 거리 모퉁이에서 어렵게 자리를 지켜온 분이었다.

한국에서 일본에 사시는 어느 단체의 대표의 부인이 천수를 받고 “일본에 오면 돋겠다”고 약속했지만, 막상 와보니 연락은 끊기고 언어도 통하지 않아 수많은 어려움 끝에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고 했다.

그분은 단호하게 말했다.

“일본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마사지 기술을 익혀야 해요. 괜히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깨달았다.

‘그래서 스승님께서 일본의 문을 열어야 한다 하시고, 도쿄에 센터를 세우고 자 하셨구나.’

그러나 지금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이까지 데리고 왔으니 이분께 짐이 될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우며 마음을 추스르기로 했다.

그냥 돌아간다는 것은 웬지 죄를 짓는 듯한 기분이었다.

밤낮없이 버티는 그녀의 모습에는 인생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곳을 찾는 교포 대부분은 고향에 아픈 사정을 남기고 온 사람들이었다.
조상과 부모 이야기에 닿기만 해도 눈시울이 붉어졌고, 의식은 알지 못한 채
반복되곤 했다.

나는 때때로 출장 천수에 동행했다.
의뢰가 들어오면 원장님이 일을 마칠 때를 맞추어 나가 함께 돌아왔다.
겨울바람은 뺨을 베듯 차가웠고, 원장님의 어깨는 납덩이처럼 무거웠으리라.
그러나 자전거에 흔들리며 돌아오는 길, 우리는 때로 어린아이처럼 사소한
이야기로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돌아보면 그 시절의 밤 풍경은 고단함을 넘어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절기마다 챙겨 주신 인사와 한국 음식은 이국의 외로움 속에서 큰 위로가
되었다.

그러나 그 온기도 오래 가지 못했다.
결국 원장님은 한국으로 돌아가셨다.

겉으로는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나 하늘의 진
리와 천수,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기를 전하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다.
그 갈망은 흔들리는 나날 속에서도 나를 붙잡는 불빛이 되었고, 다시 길을
떠나게 이끌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약간의 돈이 모이자, 나는 아이와 함께 귀국길에 올랐다.

오사카 난코항에서 오후 세 시 페리에 몸을싣고 부산에 닿은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다.

아이와 함께한 그 시간은 오랜만에 맛보는 작은 여행 같았다.

그러나 대라천에 돌아오자 스승님은 단호히 말씀하셨다.

“왜 아직 가지 않는가.”

그 시절, 스승님은 언제나 엄격하게 제자들을 채찍질하셨다.

도가道家에서는 보이지 않는 근원의 하늘을 ‘천존天尊’이라 부른다. 동시에,
하늘에서 전해진 뜻이 있었다.

그 말씀 속에는 제자들을 각자로 흩어 단련시키고 강하게 세우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당시 스승님은 이미 ‘일원(一元)’에 들어가 계셨다.

그것은 모든 것이 우주의 근원으로 돌아가 하나로 합일하는 경지였다.

그러나 그 거대한 전환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에
게 닥칠 엄청난 변화를 알 수 있었던 이는 거의 없었다.

영국·미국·호주·일본 등지로 흩어진 제자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늘의 진리를
몸으로 체득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 역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길 위에 서야 했다.

그러나 불안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그래서 스승님은 내가 안쓰러워 보였는지 산행 기도에 동행하게 하셨다.

그 당시 스승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전해주시려, 몸의 모든 진액을 짜내고 계신 듯 보였다.

그것은 하늘 역사의 급한 흐름을 아시는 분의 애절한 마음이었다.

그 무렵, 우연히 일본 SNS ‘믹시(Mixi)’에 글을 올렸다.

서툰 일본어였지만 몇몇 이들이 관심을 보였다.

그 인연은 다시 나를 일본으로 이끌었고, 마침내 오사카로 떠나게 되었다.

딸 수임이는 다른 제자들이 돌보아 주었기에, 나는 홀로 무거운 마음으로 길을 나섰다.

지금도 그 제자에게는 너무 커다란 빚을 지고 있다. 감사할 뿐이다.

겉으로는 우연처럼 보였지만, 지금 돌아보면 모든 것은 하나의 흐름 속에 있었던 것이다.

제 3 장

사카이에서의 새로운 시작 — 다다미방의 수련

작은 배낭 하나를 메고, 나는 오사카 땅에 내렸다.

처음에는 기힐링 센터에 머물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까도 생각했지만, 곧 마음을 바꾸었다. 대신, 익시에서 알게 된 다카미 씨의 도움으로 잠시 머물 곳을 얻을 수 있었다.

수련할 장소를 찾던 끝에, 구청 부속시설에 모임을 위한 다다미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른 임대 공간보다 비용이 저렴했기에,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그곳을 빌려 수련을 시작했다.

다다미방에서 천수를 전하는 동안 작은 모임이 생겨났고, 사람들은 조금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영적인 감수성이 깊은 이가 있었는데, 그는 천수를 받는 순간 정수리가 열리는 듯한 체험을 하며, 온몸의 차크라가 빛으로 가득 찬다고 말했다. 그 체험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고,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기(氣)’의 실제성을 알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이후 통역자처럼 곁에서 도와주며, 천수가 단순한 행위가 아님을 다른 이들에 게 전해 주었다.

그 무렵 나는 네 명의 수련생과 함께했다. 하지만 일본의 비싼 교통비는 늘 부담이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무거운 수련 도구와 전단지를 짊어지고 전

철을 두 번 갈아타야 하는 날이 있었다. 가는 도중, 너무 목이 말라 전철 한 번은 타지 않고 걸으면서 음료수를 마셨다. 집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한없이 가벼워졌다. 그 순간, 작은 행복이란 바로 이런 것임을 깨달았다.

저녁이 되면 머무는 집에서 나와 밤길을 걸으며 집집마다 전단지를 넣었다. 새벽녘까지 이어지는 그 걸음 속에서 새로운 구상들이 떠오르곤 했다. 그렇게 이어진 인연 가운데, 내가 머물던 집 우편함에 꽂힌 한 장의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타케우치라는 사람이 만든 홍보 전단이었다.

나는 외국인이었기에 혹시 거부감을 줄까 염려되어, 타카미 씨에게 부탁해 대신 전화를 걸어 달라고 했다. 그렇게 약속이 정해졌고, 나는 직접 나가서 타케우치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처음 만난 곳은 지금의 이즈미주오 역이었다. 버스에서 내린 순간, 멀리서 오렌지색 머리를 한 아주머니가 곧장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물었다.

“은 상입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때 타케우치는 처음부터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한다.

그 만남 뒤, 타케우치와 함께 사무실을 운영하던 또 한 명의 여성분도 함께 했다. 그녀는 “외국인이라 괜찮을까?”라며 불안을 내비쳤다고 한다. 그러자 타케우치는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들었다. 그렇게 해

서 이즈미주오의 모델하우스에서 처음 설명을 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책상
을 붙여 누워 천수를 직접 받아 보았다. 그중 한 사람은 기의 흐름을 조금
느낀 듯했고, 그것을 계기로 그의 사무실에서 천수를 시작할 수 있었다.

천수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면, 나는 언제나 화이트보드를 꺼내 우주의 흐
름과 자연의 섭리를 설명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던 타케우치는 시큰둥한 표
정으로 흘려듣는 듯 보였고, 다른 한 명은 열심히 노트에 메모를 하며 고개
를 끄덕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 뜻밖의 아이러니가 찾아왔다. 무심
해 보이던 타케우치는 제자의 길로 들어섰고, 열심히 메모를 남기던 이는 오
히려 “타케우치를 빼앗겼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그때 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곁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나는 외국인으로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에, 이들이 사람들을 소개해 주
었고, 그 인연으로 천수를 이어갈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다운증후군을 가
진 아이들과 그 어머니들을 만나게 되었다. 아이들은 언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천수를 받는 순간만큼은 자세를 고쳐 앉거나 눈빛이 달
라지곤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들은 놀라움과 함께,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 두
었던 눈물과 고민을 하나둘 쏟아내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
며, 단순히 몸을 위한 치유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까지 함께해야 한다는 것

을 절실히 느꼈다. 그렇게 상담과 천수가 이어지면서, 이 길이 나 혼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걷는 길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가운데에서도 특히 고통이 깊었던 한 어머니가 있었다. 내성적이고 자기비난이 강했던 그녀를 바라보던 어느 날, 웬지 모를 예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직접 집에 찾아가서라도 도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었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말하며 며칠 동안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들려온 소식은 너무도 갑작스러웠다. 새벽녘,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그 일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남겼다. 다케우치는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했는데…”라며 자책했고, 나는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한순간의 예감이 때로는 하늘이 주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그 후에도 사무실과 자택, 그리고 다다미방에서의 정기적인 수련과 천수는 이어졌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점점 더 간절한 바람이 커졌다. 오직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나만의 공간, 하늘과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갈망이었다. 마침내 나는 ‘기 힐링 센터’를 열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사카이 역에서 전단지를 나누어주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다가와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 인연으로 재일코리안 단체인 ‘민단’ 사무소를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마침 두 명의 여성이

있었는데, “먼저 우리가 직접 받아보고 싶다”고 말했기에, 나는 그 자리에서 천수를 하게 되었다. 그중 연세가 있으신 분은 오래 앓던 만성질환이 호전되는 체험을 하셨고, 그것을 계기로 천수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다.

그 후의 인연으로, 한 여성이 월세로 빌려둔 작은 원룸을 내게 권해 주었다. 한국에서 올 예정이던 사람이 오지 못하게 되자, 나는 얼마간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 공간을 쓰게 되었다. 비록 작았지만, 그것은 나만의 첫 수련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기도를 드리자, 마음 깊은 곳에서 샘물처럼 행복이 솟아올랐다. 이 작은 공간에서 본격적인 천수와 수련이 다시 시작된 것이었다. 그 무렵 내 곁에는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들었고, 그들은 곧 소중한 제자가 되어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그들의 체험은 추상이 아닌, 살아 있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서로의 삶을 엮으며 하나의 길로 이어져 갔다.

제 4 장

제자들과의 인연 — 작은 센터, 큰 짐 그리고 업의 그림자

비록 작은 원룸이었지만, 그곳은 나에게 처음으로 스스로 얻은 수련의 공간이었다. 기도와 천수를 드릴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샘물처럼 행복이 솟아 올랐다. 그러나 이 공간을 유지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매달 돌아오는 집세,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휴대폰 요금까지… 수련생은 있었지만 넉넉하지 못해 늘 아슬아슬한 출타기 같은 생활을 이어가야 했다.

그 무렵 나를 찾아온 이들은 대부분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타케우치의 어린 시절 친구와 그녀의 오빠는 거칠게 살아온 세월 끝에 이제는 당뇨와 중풍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그 외에도 정신적으로 지쳐 있거나,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업(業)의 무게를 짊어진 듯한 사람들, 음적인 기운에 눌려 불안정한 사람들이 많았다.

나 자신도 힘든 시기였지만 그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무상으로 천수를 전하며 이끌어 주었다. 그들을 대할 때마다 인간이란 얼마나 복잡하고 깊은 존재인지 새삼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작은 원룸에 몇 명이 모여 수련을 하면 언제나 손이 천장에 닿을 만큼 비좁았고, 서로 몸을 엇갈려 서야 간신히 수련이 가능했다. 아이들이라도 함께 오는 날이면 더욱 큰 비상이 걸려 아이들은 전부 좁은 통로에 몰아 넣고 수련을 해야 했다. 그러나 아

이들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즐겁게 놀았고, 그 해맑은 목소리를 들으며 나 는 생각했다. 인생의 무게에 지쳐 있는 어머니들의 어두운 마음 속에도 저 빛이 스며들어,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어느 날, 간신히 집세는 냈지만 휴대폰 요금을 낼 돈이 없었다. 이미 두 달이나 밀린 상태였고, 세 달이 되면 정지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타케우치의 친구이자 수련생인 여성에게 곧 갚겠다고 하며 얼마간을 빌려 달라고 부탁 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여러 험담이 펴져나갔다. 타케우치는 자기 돈을 내며 “빨리 갚으라”고 했고, 결국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차가운 말들이 번져 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머리가 사자의 갈기처럼 부풀어 있었고, 눈빛에는 날카로운 광기가 서려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없애 버리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 잡힌 듯 보였다.



나는 차분히 사정을 설명했고, 시간이 흐르자 그녀의 분노는 가라앉았다. 그 러자 이번에는 마치 어린 양처럼 온순한 태도로 바뀌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사람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이런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사소한 일에도 전혀 다른 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변하여 주위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일이 몇 차례 반복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반성문을 쓰게 했다. 그리고 “일곱 번까지는 참아 줄 테니, 함께 고쳐 나가자”고 말했다.

그러나 경험이 부족한 이들이 늘 그렇듯, 마치 정의의 수호신이라도 된 듯 “내가 나서서 책임지고 고쳐 보겠다”고 호기롭게 말하는 이도 있었다. 하지 만 머리로만 생각한 일은 현실에 부딪히면 금세 무너져 버리고, 결국 가벼운 해프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마침내 일곱 번째가 되었을 때, 더 이상 개선의 여지는 없었고 그녀 스스로 도 그것을 인정했다. 그녀는 떠났고, 나는 그 과정을 통해 깊이 깨달았다.

— 집안의 업이란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임을. 나는 그때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깨달았다.

그 무렵 나를 따르던 이들은 제자가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살아 있는 체험으로 남았다. 나의 시련이 인생의 벽을 허무는 통로였

던 것처럼, 제자들 또한 각자의 벽을 허무는 치열한 여정을 걸어가야 했다.

이제부터,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고자 한다.

제 2 부 시련과 깨달음

5 장. 타케우치 마스터의 모노카타리: 몸으로 배운 진리

6 장. 우지마루 마스터의 모노카타리: 젊은 날의 체험

7 장. 후지하라 마스터의 모노카타리와 세 제자의 탄생

제 5 장

타케우치 마스터의 모노카타리: 몸으로 배운 진리

여기서부터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체험은 나의 여정과 맞물리며 또 다른 빛을 지니고 있습니다. 각자가 몸으로 부딪히며 배운 진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살아 있는 증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 타케우치는 반항적인 기질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중시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선뜻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어려움, 딸의 장애, 그리고 곁에서 직접 체험한 사건들은 조금씩 그를 변화시켜 갔습니다. 타케우치는 머리로 이해하기보다 몸으로 부딪히며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준 실천

주부로서 바쁜 생활 속에서도, 마음이 정해진 순간에는 누구보다도 빨리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아침 7 시 반이면 센터에 나와 일을 돋고, 필요한 자리마다 발 벗고 나서며 늘 몸으로 참여하면서 배움을 쌓아갔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체험들

한 번은 일본의 유명한 서예가 제자라는 분이 방문했습니다. 천문기도가 시작되자 그녀의 몸은 버티지 못하고 뒤틀리며, 마치 도망치듯 센터를 빠져나갔습니다. 천문은 하늘의 언어이기에 불순한 마음을 가진 이들은 그 기운을 견디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모습은 타케우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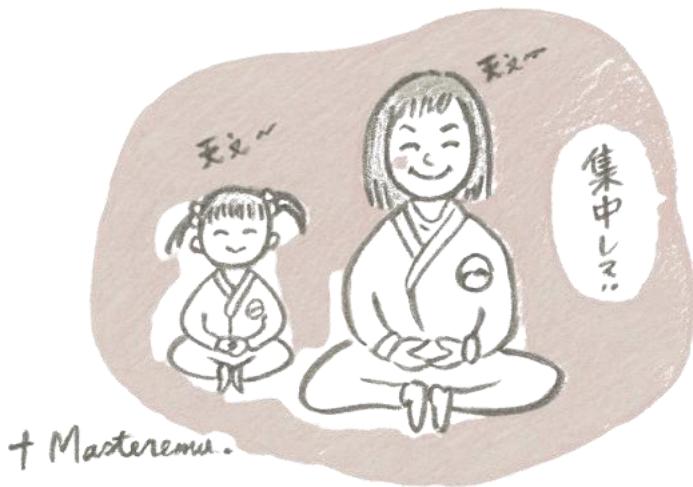
또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점잖고 차분했으며, 아내는 적극적인 성격으로, 특히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는 밝은 분이었습니다. 그날 천수를 하던 중, 아내에게서 강한 영적 반응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보니, 영이 머무는 자리에 따라 특유의 냄새가 풍겼는데, 허리에 영이 있으면 허리에서, 머리에 있으면 머리에서 심한 냄새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내의 경우 허리 부분에서 그 냄새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이후 ‘생명의 샘터’ 앞에 섰을 때, 아내는 밝은 기운에 놀라듯 강한 힘에 휘청하며 뒤로 넘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음적인 영혼은 밝은 기운 앞에서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케우치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제자 교육과 새로운 전환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뒤, 큰스승님의 배려로 저는 제자 교육에 임할 수 있었고, 타케우치는 자녀들과 함께 약 두 달 동안 낯선 땅 한국의 대라천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과 가족을 두고 긴 시간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 과정은 많은 가르침과 체험을 안겨주었습니다.

타케우치에게도 이 시간은 제자로서의 길을 한 걸음 더 내딛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애정과 이해

타케우치는 머리로 계산하기보다 몸으로 진리를 체득했고, 사람을 품고 이해하는 폭이 넓었습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생각보다 실천으로 길을 걸었습니다. 이후 세월이 흐르며 수련과 센터 운영을 더 체계적으로 이끌 필요가 있었을 때, 그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 지금까지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전환

이처럼 타케우치의 발걸음은 단순한 체험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으로 배운 길은 제자로서의 삶으로 이어졌고, 이어 우지마루와 후지하라 역시 각자의 체험을 통해 이 길에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 제자가 함께 걷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타케우치가 몸으로 진리를 체득한 것처럼, 우지마루 역시 자신의 체험을 통해 영적 세계가 인간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제 6 장

우지마루 마스터의 모노카타리: 젊은 날의 체험

“처음 나를 본 사람들은, 젊은데도 마치 시체실에서 일하는 사람 같다고 했어.”

우지마루는 담담히 자신의 젊은 날을 떠올렸습니다. “내 몸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늘 무언가에 눌린 듯한 삶을 살고 있었지.”

그 변화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옆집에 살던 타케우치가 어느 날 무심코 던진 “기, 와 이리 좋노!”라는 한마디가 우지마루를 이 길로 이끌었습니다. 짧고 가볍게 던진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료의 변화에서 찾은 실마리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하던 노인 케어 센터에는 늘 무언가에 눌린 듯 지내던 동료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가위에 눌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안면신경마비가 너무 오래되어 약도 주사도 듣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우지마루는 그녀에게 천수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머리가 아프다면 그만두고 싶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를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기운을 풀어내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긴장이 풀리더니, 그 자리에서 무려 두 시간을 내리 잠들었습니다.

“그날 나는 확실히 알게 되었어. 영적인 세계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며, 사람의 몸과 마음에 깊숙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삶이 무겁고 힘든 이유 중 상당수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걸 깨달은 거야.”

죽음을 바라보며 생긴 질문

노인 케어 센터에서의 일은 자연스레 많은 죽음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지마루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마다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가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신념이 있는 사람은 평안하게 마지막을 받아들였지만, 신념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 차이를 눈으로 확인한 우지마루는 스스로 물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본질은 무엇일까?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답을 찾기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성격과 역할

우지마루는 나서서 주도하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차분하고 안정된 태도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곁에 있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타케우치가 직설적이고 행동으로 밀어붙이는 기질이었다면, 우지마루는 부드럽고 조용히 풀어가는 기질이었습니다. 곁으로는 정반대였지만, 두 사람 모두 머리보다 몸으로 체득하며 배우는 기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알게 모르게 부딪히기도 했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며 보완해 나갔습니다.

제 7 장

후지하라 마스터의 모노카타리와 세 제자의 탄생

후지하라는 처음 저를 만났을 때, 다다미방 수련 모임에 친구를 따라왔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근본 없는 영적 지식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곁으로는 인터넷에서 자신을 대단하게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그릇된 가르침 때문에 자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만큼은 선했고, 누군가를 돋고 싶다는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끝없는 질문과 소명

후지하라는 늘 질문이 많았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소명을 반드시 기억해내야 해.”

그녀의 호기심은 때로 방황으로 이어졌지만, 그 안에는 진리를 향한 간절한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파칭코에서의 체험

한 번은 파칭코를 하던 중, 그녀의 눈앞에 작은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제 이야기를 듣고서 야 깨달았습니다. 죽은 영혼은 음과 양이 분리된 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변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살아 있을 때가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그 제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와 진리의 표현

교토의 이토엔에서 함께 길을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액자에 적힌 글을 읽어 주던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젠가 진리를 말로 표현하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자주 길에서 벗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감은 결국 미련처럼 마음 한켠에 남아버렸습니다.

대라천에서의 체험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뒤, 큰스승님의 배려로 대라천에서 제자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후지하라에게도 함께 가자고 권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동행했습니다.

교육 이틀째 되는 날, 다른 이들이 준비로 분주할 때 후지하라는 늦게 달려 오다 바닥에 미끄러졌습니다. 작은 돌이 잇몸 뿌리에 정확히 부딪혀 앞니가 내려앉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몇 명의 마스터들이 즉시 그녀를 안으로 데려와 동시에 천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내려앉았던 이가 다시 제자리에 붙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그녀를 붙잡고 있던 오래된 집착이 끊어지는 전환점일지 모른다.”

세 제자의 탄생

대라천에서의 체류는 약 두 달간 이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은 49 일간의 제자 교육 기간이었으며, 이는 저에게도, 그리고 세 제자에게도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타케우치는 몸으로 부딪히며 배우는 기질답게, 기도와 수련 속에서 진리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우지마루는 차분한 성품대로, 영적 세계가 인간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험을 통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후지하라는 넘어짐과 치유의 사건을 겪으며, 마침내 자신의 길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은 더 이상 단순한 수련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제자로서 새롭게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세 제자의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진리를 전하는 살아 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마침내 다음 세대의 순수한 질문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걷기 시작한 새로운 수련생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코코네. 그녀는 새로운 세대를 상징하며, 맑은 마음으로 진리를 묻고, 그 답을 찾아나아갑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제 3부 죽음과 영혼의 길

8 장. 죽음 이후의 길, 영혼의 탄생

- 오카타의 부고
- 영의 다섯 단계(저급 · 초급 · 중급 · 고급 · 대영계)
- 영을 신으로 혼동하는 세상
- 참된 해탈의 길
- 살아 있을 때만 가능한 변화

일원(一元)으로 향한 스승님의 길

9 장. 신과 영, 그리고 근본으로의 회귀

- 대전환의 시대와 5,787년 주기
- 부활의 올바른 의미: 원심으로 다시 태어남
- 신과 영은 다르다: 7 신계와 5 영의 세계
- 신·조상·나, 하나의 연결
- 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길

제 8 장

죽음 이후의 길, 영혼의 탄생

그 무렵, 센터에 드나들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오카다.

호탕한 성격으로, 무엇보다도 먹는 것을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늙은 어머니를 돌보며 함께 살았고, 때로는 어머니와 함께 천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언제나 올바른 궤도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육신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지만, 자신을 돌아보려 하지 않았고, 죽음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 번 그를 타일렀지만, 그에게는 그저 헛된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고, 무엇보다도 그의 인생의 무거움이 저 세상에서도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깊은 물음을 던졌습니다.

—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코코네와의 대화

코코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정말로 끝이 아닌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코코네. 사람이 죽는 순간, 육체와 영혼은 갈라지지.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사라지지 않아.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란다.”

영계의 다섯 단계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과 함께 공존하는 세계, 그것을 영계라 한다. 영혼은 죽은 뒤에도 살아온 행실과 짜장에 따라 머무는 자리가 달라진다. 영계는 크게 다섯 단계로 나뉘며, 아래로 갈수록 어둡고 위로 오를수록 밝은 빛의 세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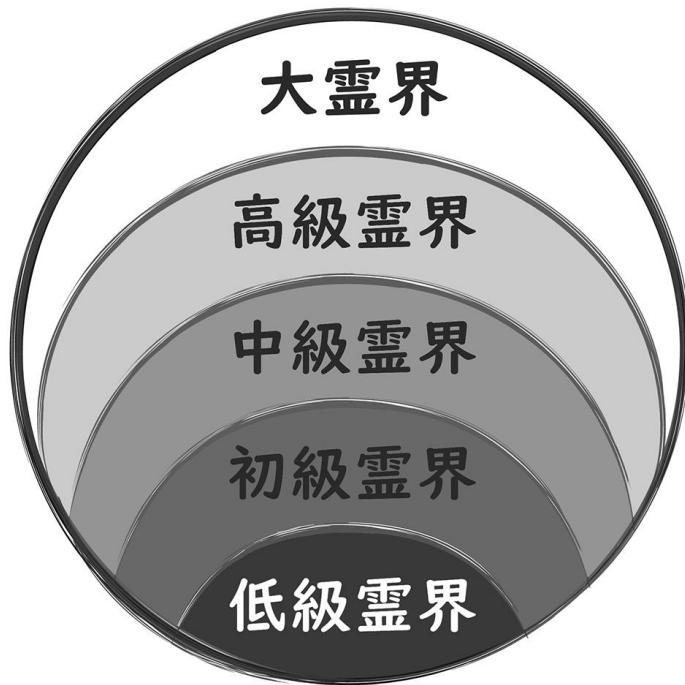
저급 영계: 인륜을 저버리고 악행을 저지른 영들이 머무는 가장 어두운 곳. 후손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초급 영계: 욕심만 쫓아 산 영혼이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아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르고 떠도는 영들이 속한다.

중급 영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과 정화를 거치는 자리. 밝음과 어둠이 교차하는 경계로, 영혼은 업을 씻어내는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

고급 영계: 마음이 정화되어 자유로워지고 다른 영혼을 도울 수 있는 단계. 그러나 아직 완전한 해탈은 아니다.

대영계: 나라와 세상을 위해 헌신하며 산 이들이 속하는 곳. 숭고하고
빛난 세계이지만, 이 또한 천국은 아니기에 고통이 남아 있다.



영과 신을 혼동하는 세상

문제는 많은 이들이 이 같은 영을 ‘신’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를 신이라 속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거짓된 믿음과 미신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혼은
어디까지나 영혼일 뿐, 신은 더 근원의 세계에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참된 해탈의 길

사람들은 죽은 이를 위해 제사를 지내고 위령 의식을 올리지만, 그것은 영혼을 달래고 깨우칠 뿐 근본적인 해탈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참된 해탈은 하늘에서 내린 빛의 불꽃, 천화(天火)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천화는 생전에 업과 원한으로 더럽혀진 영혼을 맑히고, 본래의 밝은 빛을 되찾게 하여 근원의 동산으로 인도합니다. 제령, 영수, 천도는 바로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 하늘이 내려주신 성스러운 법입니다.

살아 있을 때만 가능한 변화

사람은 살아 있을 때만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몸과 영혼이 함께 있고, 음과 양이 하나로 있는 동안만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죽고 나면 그

순간의 의식과 습관, 집착이 굳어져 더 이상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살아 있는 지금, 마음을 맑히고 파장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코코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기회군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살아 있다는 것은 변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 기회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일원(一元)으로 향한 스승님의 길

코코네와의 대화를 통해, 영과 신을 혼동한 채 방황하는 세상의 모습을 다시
금 보게 되었고, 나는 스승의 걸음을 떠올렸다.

그 길은 단순한 수련이 아니었다. 인류가 길을 잃은 이유를 밝혀내고, 본래
의 길을 여는 우주적 사건이었다.

영혼과 육체의 한계를 넘어 일원(一元)으로 향하는 고독하고 승고한 여정이
었다.

제 1 기: 인간의 몸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준비. 천수와 의술, 신술, 통
신을 통해 하늘의 질서를 몸에 새기셨다.

제 2 기: 1986년 화신을 계기로 성신 십단계를 거쳐 하늘과 하나가 되
셨고, 제령·영수·천도, 그리고 천화용검을 통해 영계 정화의 시대를 열
어주셨다.

제 3 기: 2008년 일원 15 단계를 완성하시어, 만물의 근원인 일원과 하
나 되셨다. 모든 것이 근원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자
리였다.

스승님께서 신탁을 통해 받으신 말씀,

“文武大道 世人出 地上仙境 千年壽”.

이는 곧 “문과 무, 음과 양의 진리를 깨달은 이들이 세상에 나와 지상에 신

선이 사는 듯한 천년의 낙원을 열 것이다”라는 하늘의 선언이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몸으로 진리를 체득

하며 새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제 9 장

신과 영, 그리고 근본으로의 회귀

코코네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살아 있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영혼이 제대로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나는 차분히 답했다.

“좋은 질문이야, 코코네. 죽음을 아는 것은 곧 삶을 바꾸는 힘이 되지.

살아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밝히고, 조상과 이어지며, 지금 이 순간을 밝게 살아야 해.

그것이 영혼이 죽은 뒤에 밝은 길을 걷게 하는 토대가 되거든.”

대전환의 시대

“그리고 지금은 개인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큰 문 앞에 서 있는 때란다.

이 지구는 5,787년을 주기로 거대한 순환을 반복해.

우주 또한 물질계이기에,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 인력과 각도가 흐트러지게 되지.

이제는 그것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야 할 시기에 이르렀어.

그래서 자연도, 영계도, 인간도 모두 커다란 순환의 직면에 서 있는 거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해법이 있음을
아는 거지.”

부활, 오해 없는 이해

나는 말을 이어갔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부활’은 기독교에서 흔히 말하는,
죽음을 겪고 다시 육체로 태어나는 것을 뜻하지 않아.
진정한 부활은 원심(元心)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즉 본래의 근본 자리로 돌아가는 걸 의미하지.

그것은 죽은 뒤의 환생이 아니라, 살아 있는 동안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늘의 근본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란다.”

신과 영은 다르다

나는 코코네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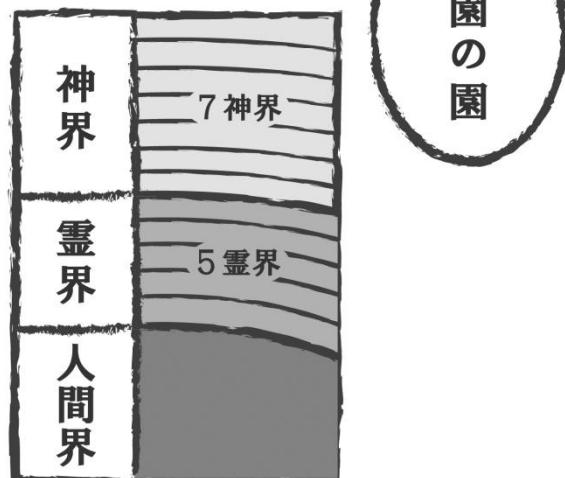
“코코네,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
영과 신은 근본이 다르다는 거야.

영혼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불씨지만, 신은 그보다 더 근원의 자리에 존재하고 있지.

사람들은 영을 신으로 착각하기도 하지만, 영과 신은 같은 것이 아니란다.

신의 세계는 일곱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는 그것을 7신계(七神界)라고 부르지.



그곳은 영의 세계보다 더
높고 깊은 자리, 창조주의
뜻이 흐르는 차원이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본
래 그 신으로부터 와서, 인
간의 몸에 깃든 것이지.”

신·조상·나, 하나의 연결

“그리고 꼭 알아야 할 게 있어.

그래서 신과 조상, 그리고 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조상들의 삶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고,
조상의 근본은 하늘의 신에서 비롯된 것이지.
그러니 나의 영혼 또한 신으로부터 흘러와 조상을 거쳐 지금의 나에게 이어
진 거야.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해.
신과 조상과 나를 하나로 잇는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곧 인간이 걸어야 할 참된 길이고,
새로운 시대를 맞는 열쇠란다.”

코코네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신과 조상과 내가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 마음이 뜨거워지네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래, 코코네. 지금은 모두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야.
그 길 위에서만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으니까.”

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길

나는 마지막으로 차분히 말을 맺었다.
“이 길에는 분명 해법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말로는 다 전할 수 없어.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수련을 통해 느껴야만 알 수 있지.”

그 해법은 바로 하늘이 내려주신 **하늘 12 진법과**,
조상과 영혼을 바로 세우는 **제령·영수·천도의** 길에 숨어 있단다.

하지만 여기서는 단지 질문만 남겨 두자.

진정한 해답은 직접 와서 보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알게 되지.”

코코네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럼… 저도 직접 찾아가야겠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래, 그 마음이 시작이야.

그 다음은 네가 직접 체험으로 확인하는 길이 기다리고 있단다.”

제 4 부 수련과 합일의 길

10 장. 하늘 12 진법 — 살아 있는 우리를 위한 수련

11 장. 제령·영수·천도 — 조상과 이어진 천륜을 맑히다

12 장. 두 길의 합일 — 하늘·조상·나, 하나로 돌아가다

- 두 길이 하나로 이어지는 원리
- 원심회귀: 근본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
- 시대적 전환기와 우주의 섭리
- 새 시대의 문을 열다

제 10 장

하늘 12 진법: 살아 있는 우리를 위한 수련

코코네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물었다.

“원장님, 그럼 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마음을 맑히고, 신과 조상과 연결될 수 있는 걸까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질문이야, 코코네. 바로 여기서 하늘 12 진법의 길이 시작되는 거란다.”

살아 있는 동안만 가능한 변화

“앞서 말했듯이, 영혼은 살아 있을 때만 변화를 이룰 수 있어.

몸과 영혼이 함께 있어 음과 양이 합일된 시기에만 가능하지.

죽고 나면 변화는 멈추고, 영은 자신이 쌓아온 그대로의 파장을 안고 가야 해.

그래서 살아 있는 동안, 스스로를 새롭게 세우는 수련이 필요하지.

그 해답이 바로 하늘 12 진법이란다.”

하늘 12 진법의 의미

“하늘 12 진법은 단순한 호흡이나 기의 훈련이 아니야.

이는 하늘의 파장과 합일하여, 본래의 일기(一氣),

즉 생명의 근본 기운과 다시 연결되는 수련이지.

12라는 수는 하늘의 질서를 상징해.

하루 12 시진, 일 년의 12 달, 하늘의 12 방위…

우주와 자연은 12의 법칙으로 순환하고 있어.

하늘 12 진법은 그 질서를 몸과 마음에 새기며,

인간을 다시 근본의 리듬에 맞추는 수련이야.”



Level One

수련의 본질

“하늘 12 진법의 수련을 통해 사람은 파장을 정리하고,
흐트러진 기운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어.
그 순간 마음은 맑아지고, 원심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리지.

이 수련은 눈에 보이는 단순한 동작이나 호흡법이 아니라,
하늘과 직접 이어지는 진법이야.

그래서 수행자는 점차 하늘의 기운을 받아,
자기 안의 영혼과 하나가 되고,
또 조상과 신과 이어지는 길을 열 수 있는 거지.”

코코네의 깨달음

코코네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그 그러니까 하늘 12 진법은… 단순한 수련이 아니라,
내가 근본으로 돌아가는 실제적인 길이군요.”

나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코코네. 그것이 바로 살아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첫걸음이야.
하늘 12 진법은 살아 있는 우리를 위한 수련이지.
이 길을 걷는 자만이, 죽음 이후에도 밝은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란다.”

제 11 장

제령·영수·천도: 조상과 이어진 천륜을 맑히다

코코네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원장님, 그렇다면 조상님들은요?

저는 살아 있는 동안 변화할 수 있다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좋은 질문이야, 코코네.

바로 여기서 제령(祭靈)·영수(靈修)·천도(遷度)의 길이 필요해.”

조상과 나, 하나의 천륜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나라는 한 사람의 삶 뒤에는 수많은 조상들의 삶이 이어져 있지.

그 피와 기운, 그 업과 인연이 고스란히 내게 흘러 들어와 있어.

그래서 나와 조상은 떨어져 있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고,

하늘·조상·나는 하나로 이어진 천륜이야.

그 천륜을 맑히는 것이 바로 제령·영수·천도의 길이지.”

제령(祭靈)

“먼저 제령은 조상의 혼을 불러 그 얹힌 기운을 풀어내는 의식이야.

하지만 단순히 부르는 데 그치지 않고,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조상들의 기운은 후손의 몸과 마음에 그대로 이어져 있어.

그래서 후손이 겪는 많은 고통과 눌림이 사실은 조상으로부터 전해진 업과
얽힘 때문이기도 해.

제령은 그 얹힌 조상의 기운을 후손의 몸에서 분리해 내고,

그 영혼을 천명(天命)으로 돌려보내는 첫 걸음이야.

이것은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조상 영혼이 본래의 자리를 찾아 돌아갈 수
있도록 후손이 문을 열어주는 과정이지.”

영수(靈修)

“다음은 영수야.

영수는 조상들의 혼이 제령을 통해 분리된 뒤,

그 마음과 파장을 정화하고 수련시키는 과정이야.

죽은 뒤의 영혼은 스스로 변화를 만들 수 없어.

몸과 마음이 하나인 시기를 이미 떠났기 때문이지.

그래서 후손의 기도와 수련, 그리고 맑은 파장이 그들을 비추어 주어야 해.

영수는 곧 후손이 대신 수행하여 조상의 혼을 밝히는 일,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조상과 후손이 함께 근본으로 가까워지는 일이란다.”

천도(遷度)

“마지막은 천도야.
제령으로 분리되고, 영수로 정화된 영혼을
밝은 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과정이지.

천도는 얹힘을 풀고 맑아진 조상들을
본래의 고향인 빛 속으로 보내는 일,
즉 근본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마무리야.

죽은 뒤에는 스스로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살아 있는 후손의 도움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지.”

살아 있는 우리와 돌아가신 조상

“살아 있는 우리를 위한 길이 하늘 12 진법이라면,
돌아가신 조상을 위한 길은 바로 제령·영수·천도야.

살아 있는 나와 돌아가신 조상이 함께 근본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하늘·조상·나가 하나로 합일하게 되는 거지.”

코코네는 감동한 듯 눈시울이 붉어졌다.

“조상님들이 단순히 과거가 아니라,
지금 제 삶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게 느껴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코코네. 조상과 나, 그리고 하늘은 끊을 수 없는 하나의 천륜이야.
그 천륜을 막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주어진 우리의 사명이란다.”

제 12 장

두 길의 합일: 하늘·조상·나, 하나로 돌아가다

코코네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원장님, 이제 알 것 같아요.

살아 있는 우리가 하늘 12 진법으로 스스로를 바로 세우고,

돌아가신 조상님들은 제령·영수·천도를 통해 정화되어야 하는 거군요.

결국 두 길은 하나로 이어지는 거죠?”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코코네.

하늘 12 진법은 살아 있는 우리를 위한 수련이고,

제령·영수·천도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한 수행이야.

하지만 이 둘은 결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란다.

결국은 모두 **하늘·조상·나**가 하나로 합일하는 길이지.”

두 길이 하나로 이어지다

“살아 있는 내가 수련을 통해 마음을 맑히면,

그 파장이 곧 조상들에게도 전해져.

조상들이 정화되고 천도를 통해 근본으로 돌아가면,

그 빛은 다시 나에게 흘러와 힘이 되지.

이처럼 살아 있는 나와 돌아가신 조상이 서로를 돋는 순환 속에서,

하늘의 뜻이 드러나고, 본래의 자리가 열리게 되는 거야.”

합일의 의미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개인의 삶만을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삶은 곧 조상의 삶과 연결되어 있고,

그 근본은 하늘의 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지.

하늘·조상·나가 하나로 돌아가는 순간,

비로소 인간은 근본과 합일하여 온전한 존재가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원심회귀(元心回歸),

즉 근본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이란다.”

시대적 전환기와 우주의 섭리

나는 말을 이어갔다.

“코코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특별한 때란다.

우주에는 질서가 있고, 그 질서는 순환의 법칙으로 움직이지.

지구 또한 5,787년을 주기로 큰 순환을 거듭하며,

그 주기가 다하면 반드시 새로운 전환이 찾아와.

지금 인류가 마주한 혼란과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야.

우주의 섭리에 따른 당연한 흐름이지.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근본으로 돌아가 새로운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해.

하늘 12 진법은 살아 있는 우리를 위한 길이고,

제령·영수·천도는 조상을 위한 길이지만,

그 끝은 결국 하나로 모여 이 대전환기를 건너게 하는 열쇠가 되지.

하늘·조상·나가 합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주의 섭리와 함께 새 시대를 열 수 있게 되는 거야.”

코코네의 깨달음

코코네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말했다.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로 이어져 있었군요.

그 길을 잊고 살았을 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답했다.

“그래, 코코네.”

근본으로 돌아가는 길, 그것이 바로 하늘이 준비한 새 시대의 문이야.

이제는 그 문을 열 차례란다.”

에필로그

새벽을 여는 고요한 예감

밤은 깊었지만, 그 안에서 이미 새벽은 준비되고 있었다.

인류가 겪어 온 어둠과 혼란, 죽음과 두려움의 그림자는 길고도 무거웠다.

그러나 모든 순환이 그러하듯, 끝은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다.

조상과 이어진 천륜을 맑히고, 하늘과 나를 잇는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새 시대의 문 앞에 서게 된다.

그 순간은 요란하지 않다.

마치 새벽이 고요 속에서 시작되듯,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다가오는 잔잔한 예감으로 찾아온다.

그 예감은 두려움이 아닌 희망의 속삭임이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말해 준다.

“새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당신의 걸음을 기다리고 있다.”

후기

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진리의 저편으로

이 이야기는 한 개인의 체험에서 시작되었다.

낯선 도시에서의 방황, 만남과 이별, 그리고 조상과 영혼을 향한 질문들.

그러나 그 여정은 단순한 회고록이나 기록으로 머물지 않았다.

길 위에서 드러난 것은 곧 진리의 근본이었다.



영과 신은 다르며, 인간은 신과 조상과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
살아 있는 동안 수련을 통해 원심으로 돌아가야 하며,
돌아가신 조상들은 후손의 기도와 수련을 통해 정화되어야 한다는 깨달음.

이 체험은 더 이상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직면한 우주의 섭리와 순환의 법칙을 증언
하는 길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결론으로 모인다.

—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원심으로 회귀해야 한다. —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것이다.
책은 여기서 끝나지만, 진리의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이제 결음을 내딛는 이는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이 이야기는 다시 시작되고,
그 길은 당신의 삶 속에서 완성될 것이다.

스승님의 일원(一元)으로의 여정

우주 법칙을 체현한 삶의 연표

이 연표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가 마침내 돌아가야 할 근원(一元)으로의 회귀를,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증명한 증거이다.

이 길을 이해할 때, 우리는 모든 고난과 깨달음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제 1 단계: 근원의 각성과 에너지의 발현 (1979년~1986년)

이 시기는 우주의 근원적 파동과 하나 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다.

한 사람이 대자연과의 교감과 극한의 수련을 통해 자신을 정화하고, 신성한 힘의 통로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

1979년~1984년: 대자연과의 수련을 통해 세속의 때를 벗겨내고, 사후 세계를 배우며, 우주의 에너지를 활용한 치유 능력을 체득하였다.

1984년~1986년: 7,000종이 넘는 우주적 치유술과 초자연적 능력을 받았다. 육체를 통해 우주의 근원적 생명 에너지를 전하는 ‘천수’의 능력을 얻고, 입신육도의 수련을 완성하여, 마침내 화신(化神)의 경지에 도달하였다.

제 2 단계: 우주 법칙의 체계화와 실천 (1986년~2000년)

이 단계에서는 개인적 깨달음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보편적 체계로 확립되었다.

이는 “진리는 독점할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완성된다”는 우주의 법칙을 드러낸 것이다.

1986년: 우주의 조화와 균형을 체현하는 ‘하늘 12 진법’이 전해졌다. 또한 영혼을 정화하는 의식을 통해 삶과 죽음의 기 에너지 순환의 길이 열렸다.

1987년~1991년: 명산에서의 수련과 단식, 철야 기도를 포함한 극한의 수행을 통해, 우주의 기 에너지를 대지에 정착시켰다. 이는 새 시대를 여는 강고한 영적 기반을 세우기 위한 헌신이었다.

1993년~1998년: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천화용검’의 수련을 완성하고, 오방의 창조 능력을 받았다. 이어 자신이 체득한 능력을 제자들에게 전수하여, 누구나 빛의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제 3 단계: 완성과 새 시대의 시작 (2000년~2015년)

이 단계는 모든 수련이 집약되어, 마침내 우주의 근원과 완전히 하나 된 최종의 과정이었다.

한 존재의 완성이, 인류 전체의 새 시대를 열었다.

2000년: 지금까지의 수련을 집대성하며 최종 단계의 수련에 들어갔다.

2008년: 우주의 근원인 ‘일원(一元)’과 완전히 합일하고, ‘일원계(一元界)’의 도래’를 선언하였다. 이는 기존 시대가 끝나고, 새 법칙에 따른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린 것이었다.

2015년: 모든 여정을 마치고, 육체를 떠나 근원으로 돌아갔다. 이로써 완성된 우주의 기 에너지가 이 땅에 남아, 다음을 잇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상 세계를 창조할 때가 되었음을 드러냈다.

부록 — 천수(天手)란 무엇인가

1. 천수의 본질

천수(天手)는 단순한 '기공'이나 '손으로 하는 치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한 작용입니다. 하늘의 기운(天氣) 중에서도 특히 생명 창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생명의 원기(元氣)를 재충전하고, 흐트러진 생명의 질서와 리듬을 회복시키는 시술입니다.

2. 고도한 정신계의 원리

천수의 작용은 일반적인 기(氣)의 흐름을 느끼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시술자는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空)', 대우주의 파장과 일치시킴으로써, 하늘의 원기가 흐르는 통로가 됩니다.

그 결과, 환자(받는이)는 다음의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합니다.

1. 병의 전이와 정화 환자의 몸과 마음에 쌓인 병이나 업(業/카르마)이 시술자에게 옮겨져 정화됩니다.
2. 생명의 원기 전수 대우주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원기가 손을 통해 환자의 몸과 마음에 주입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음(陰)'과 '양(陽)'처럼 하나가 되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3. 사람마다 다른 처방의 원리

천수가 확립되기 전, 스승(師匠)은 약초를 이용한 수련 (입신육도의 제 3 단계, 1983–1984)을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한 사람에게 하나의 처방(一人一処方)'의 원칙에 따라, 환자마다 다른 약초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같은 병명이라 할지라도, 선조의 업보, 천기와 지기(天氣と地氣), 개인의 영 혼의 짜장 등이 복잡하게 얹혀 있기 때문에 처방은 반드시 달랐습니다.

그 수련의 마지막에 "이제부터는 약이 아니라, 손을 통해 치유하는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셨고, 천수 시술이 시작되었습니다.

4. 천수의 특성

사랑의 힘: 시술자는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의 마음으로 임합니다.

거울의 작용: 환자의 심신·영혼 상태가 시술자에게 투영되어, 시술자가 대신 정화합니다.

생명 질서의 회복: 단순한 '기 부족'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대우주의 리듬을 내면으로 되찾아 몸과 마음의 균원적인 질서를 바로잡는 작용입니다.

생명의 원기 재생: 사람이 태어날 때 단 한 번 부여받는다는 '하늘의 기운'을 다시 충전하는 작용입니다.

5. 천수의 목적

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화하고, 대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되찾는 것, 이것이 바로 천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